



이 원 걸  
대한전기협회 회장

# 신년사

다 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기인 여러분들과 가족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이 땅에 전기사업이 시작 된지 120년이 되었던 해로 사상 최초로 전력수요가 6,000만 kW를 넘어서는 성장을 보였으며, 59년간 끊겼던 남·북간의 전력사업 교류 물꼬를 튼 개성평화변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호주, 러시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전 및 송·배전, 연료자원 확보 등 모든 전력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진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한전은 중국 하남성 화력발전소 건설 투자합의서 체결을 비롯한 중국내 최대의 외국 풍력사업자로 부상하였는가 하면, 나이지리아 최대 발전소 복구사업의 수주로 아프리카 전력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전력사업의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는 계속해서 전력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 감축 등 새로운 국제환경질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을 비롯하여 풍력, 연료전지,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해 이와 같은 전력사업의 변화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기계 중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 위탁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어 전기사업법 상의 기술기준에 대한 조사, 연구, 심의 및 개정 건의 등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전기협회와의 전기기술교류컨퍼런스를 정례화하고 중국전력기업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화 시도와 함께, 국내 기업체 및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등과의 MOU 체결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협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5단계 2차년도에 들어선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개발업무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신고리 1,2호기 등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영흥3,4호기, 영월복합화력발전소 등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표준위원회로부터 표준개발 협력기구로 지정되어 원자력산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국제표준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내 전력산업 기술이 세계 전력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수출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 송·배전설비 기술규격 및 시장정보를 조사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풍력발전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인 전기부문 표준품셈제·개정작업을 비롯하여 전력신기술 지정 심의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원 교육훈련원에서는 송전, 배전 및 변전부문의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저널, 전기연감, 내선규정 및 전기인명록과 같은 다양한 기술도서의 발간 배포와 함께 기술정보 자료실을 운영하고,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협회와 전력계 주요 동향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계 최대의 행사인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 개최를 통해 유공자들에게 금탑을 포함한 정부 훈·포장을 수여함으로써 전기계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으며, 장학회 운영을 통해 전기산업계의 유망주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전기인 여러분!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석유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전기계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간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으로 인한 환경규제는 갈수록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력시장 개방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의 확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전기협회도 작년에 실시한 중장기발전방향 연구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즉 “전기산업 발전 및

전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계의 중심단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올해에는 특히 고객만족 제고, 재무성과 향상,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조직역량의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만큼 이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도 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샵 개최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정부는 물론 전력산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 또는 위임 받은 각종 사업들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일본전기협회와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등 해외기관들과의 기술정보 교류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EPIC 5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전력설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과 함께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자격인증제도 운영에 의한 인증업체들의 비용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국내 최대의 전력분야 기술대회로 자리 매김한 KEPIC-Week 행사를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한전기협회는 전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 지식의 보급과 전기기능인력의 양성으로 전기산업 진흥에 기여한다는 미션 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 대한전기협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들과 전기계 인사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